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신앙의 유산 성경: 신명기 5장 11-16절

Tag: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신5:11-16)

하나님은 신앙이 유산처럼 자자손손 물려지기를 바라신다.

지금껏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과거부터 기독교는 핍박 받는 종교였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일본과 조선에서 천주교는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일제시대 부터는 개신교가 핍박의 중심에 섰다. 일본은 천황에게 인사를 드린 다음에 예배하라 하였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혀 고초를 당하였다.

해방후 북한을 점령한 김일성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했으며, 6.25 사변이 일어나면서 남한의 교회는 더욱 핍박을 받았고, 특히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집단학살이 자행되었다. 북한군이 퇴각하면서 잡아간 교계 지도자들도 1천여명이나 된다.

현재까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로 보고되고 있다. 작년 한해만 아프가니스탄이 1위였을 뿐이다.(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북한이 다른 공산국가 보다 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유는 주체사상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주체사상은 기독교의 교리를 본떠서 만든 일종의 사이비 종교 교리서 같다. 탈북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모두들 느끼는 감정이 ‘주체사상은 기독교 교리를 베껴 놓았구나’ 하는 깨달음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를 박해해 왔는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박해하는 이유가 주체사상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럴듯함)

현재도 북한은 남한이 공산화 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 1/10 줄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황장엽씨 말에 의하면 대표적인 전략이 북한의 대남전략, ‘한국 10대 대형 교회 죽이기’라 한다.

물론 북한의 공작으로 교회의 비리가 파해쳐져서 남한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오롯이 북한의 소행 때문에 남한의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남한의 교회가 그만큼 취약한 면이 있고, 모순된 체제속에 갇혀있다는 뜻도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신앙과 경건을 잃지 않고 주와 그 몸되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으니 실로 귀하고 복된 성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일부 좌파 성향의 목사들이 신앙적으로 회의감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조차 잃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념이 나약한 성도들의 신앙 열정을 잿더미로 만들고 결국 그들의 이념 자체도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신앙의 유산이란 모든 신앙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모범을 보였느냐에 따라 신앙이 유산이 되기도하고, 잿더미가 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항상 기독교 신앙생활은 공격 당해왔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방심하지도 말아야 한다. 몇몇 뿌리가 깊지 못해서 경건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경건을 도덕적으로만 여기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위축되는데,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알곡 성도는 더욱 더 열심히 경건생활에 매진하게 된다. 건강한 사람은 병에 걸리면 투병하여 더욱 건강해 지듯이, 험악한 경건환경으로 인해서 그 영혼은 더욱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게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애쓰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시기인 셈이다.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녀에게 물려주는 신앙유산’이란 책을 쓴 박수웅 장로에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순교 당하였다. (전남대 의대 졸, 뉴욕에서 마취과 수련의. CCC미주 지역 순회강사)

할아버지는 일제 시 대때 친구의 전도로 교인이 되었다. 할아버지의 증조부는 유명한 한의사로서 조정에 드나들면서 경제적 풍요를 누렸는데, 할아버지 또한 유교의 가르침대로 살면서 효심 지극한 선비였는데, ‘최하락’이라는 친구의 끈질긴 전도를 받다가 화집에 농기구를 휘두르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되었다.

‘주여, 저 친구,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친구의 말에 놀라 지극한 효자였던 할아버지가 조부의 말을 몰래 거역하면서 교회에 다니다가 성령을 받고 신앙심이 깊어졌다. 그는 마침내 상투까지 자르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조부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수를 버리고 부모님의 용서를 받아 옛날로 돌아가 평안히 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쫓겨나 처자식들을 초근목피로 연명하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귓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12:1)

고, 그는 집에서 쫓겨나서 꺾절한 삶을 살게 된다.

할아버지는 축복음을 들고 복음전도자가 되었다. 아버지는 목사가 되려고 많이 애를 썼으나 아마 가난해서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아들에게(저자 아버지) 축복을 잊지 않았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49:22)

오늘 말씀은 십계명인데, 기독교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효도요, 어버이 공경이다.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한다.

-이름이란 곧 존재에 대한 긍정을 뜻한다. 그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것. 신의 절대적인 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전지 전능하심, 영광, 지혜, 능력, 사랑 등에 대한 신앙고백을 의미한다.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지켰는데, 점차 유대인들이 회당을 장악하고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다.

-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에서 교회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21년 제정했고, 이 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그러나 이미 부활하신 날부터 교회는 이 날을 주일이라 명하고 지켰다.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런데 그 날이 세속적으로 일요일이다.

-안식일은 이교도들이 토성(농업의 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 날을 지키는 것은 괜찮나?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로 규정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중요하고 복되고, 참된 가르침이며, 참된 배움이라는 뜻이다.

-주일은 성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 거룩한 날, 영적인 일을 하

는 날, 선행을 베푸는 날이다.

-모든 계명중 시간과 관련되어서 으뜸이 되는 계명이다.

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인간관계에서 으뜸이 되는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엡 6:2)

-왜 첫 번째 계명인가? 5계명이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기에?

-세속적인 복에 관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복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 공경을 완성하라. 어떤 사람은 무정한 부모에 대해 무정함으로 갚으려 한다. 그러면 누워서 침뱉기가 된다.

-사람이 왜 사람이고 짐승이 아닌가?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공경(729 카바드 v.); 무겁게하다. weighty. 무겁게 하라. 부담을지라.

-부모에 대한 책임을 져라. 부모의 복지를 책임지라는 뜻. 부모님을 부양하라는 뜻.

-나이가 들면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 중요하고, 슬하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라는 부모 공양을 대신 맡아준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으면 순종을 강요하지 말고, 선한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상의는 해도 강요나 몰고가지 말 것.

신앙유산을 잘 물려받고, 잘 물려주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그 은총 가운데 살게 하소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화목하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부흥을 사모하는 교회 성경: 하박국 3장

Tag:

1 시기오눗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오눗; 열정적인 음율

2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 대한 소문; 주께 대한 계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속히 이루소서.

-나의 일이 아니다. 나의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하박국 으로서는 하나님의 일과 자신의 일이 일치하였기에 흥분함.

-진노 중에라도 긍휼은 잊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일이 진노? 부흥은 심판과 함께 온다. 심판에 이어서 온다. 심판이 곧 부흥이 된다.

3 하나님이 데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 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 하도다

-데만; 에돔지역; 에서의 후손이 거하는 곳.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부흥의 절대적인 광경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찬송, 환 호

4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광명과 광선; 손으로부터 권능이 나오는 것에 대한 시각적 표현

5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역병과 불덩이; 부흥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

-심판으로부터 시작된 부흥.

6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었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땅의 진동과 전율

-영원한 산들이 무너지짐;기존의 견고한 것들이 무산됨. 새로운 질서
를 원하시는 하나님. -유엔이 무너지짐, 러시아가 무너지짐, 중국이 무너
짐, 미국은?(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7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
들리는도다

-구산의 장막, 미디안의 휘장; 사사기부터 나오는 심판의 대상들.
하나님의 부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짐작하게 하는 구절.

8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
히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
이니이까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는 하나님;병거를 몰고 흥해 바다
로 내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노래함. 애굽에게는 멸망이요, 이
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던 사건.

9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
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흥해바다의 쪼개짐

10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
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갈라진 흥해의 위용을 노래함

11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이 광채로 말미암
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여호수아의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연상케 함.

12 주께서 노를 발하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
으셨나이다

-진노하심으로 땅을 감싸셨다.

-분을 내시면서 여러 나라를 밟으셨다.

13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징악을 통한 주의 백성 구원

14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흠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그들;행악자들. 여호와와 대적들.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

-가난한 자를 삼키며 즐거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자중지란.

15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심판의 극심함에 대한 하박국이 느끼는 공포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부흥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 기뻐하리라.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합3:1-19)

-부흥을 끌어 당기는 자;고난 중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일으키시는
부흥을 소망하라! 예언적 행동으로 고난을 이겨내라.